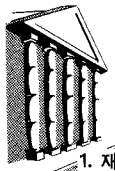


GNP대비 교육예산 5% 확충 "시급"

재정구조, 학생들 등록금으로 교수 월급 주는 꼴 정부지원 '생색내기'... 사학 '돈 끌어오기' 안간힘



시리즈 오늘의 대학

1.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학

사립대학이 심각한 몰락을 겪고 있다. 1차적인 문제로 제정의 어려움에서부터 대학자율화정책의 허구성, 또 발등의 불로 다가온 대학평가 인정제에 이르기까지 대학사회의 앞날에 놓인 장애물은 헤일하듯 밀려든다.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몇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사립대학제도의 취약성은 총장이 앞장선 무정부대학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기 고사기간 비중을 차지하는 예체능계는 오래 돈을 써서 끌어간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마다 뒤떨어지는 부정입학에서 사람들은 더이상 신뢰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분개하지도 않는다.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총장으로서의 처음으로 구속된 동국대 이범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과 동정이 엇갈렸다. 개인적인 용어가 아니라 학교 제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도덕불감증 '위협수위'

대학 제정에 관한 정부의 태도는 강건한 불구경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유네스코(1991년) 자료를 인용한 문헌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예산은 정부예산대비 23.6%로 미국(21%), 영국(12.6%)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미국정부예산은 15.7%로 미국(34.6%), 일본(25.6%), 독일(41.9%), 영국(37.7%)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예산은 정부예산과 대비하지 않고 GNP와 대비하면 한국은 3.8%로 미국(6.8%), 일본(4.8%), 독일(4%), 영국(4.7%)보다 낮고 싱가포르(3.9%), 말레이시아(7.8%), 브라질(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중은 높으나 실질적인 교육예산의 규모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GNP대비 교육예산 5%확충은 이에서 나온 주장이다.

고등교육 예산비중은 GNP와 대비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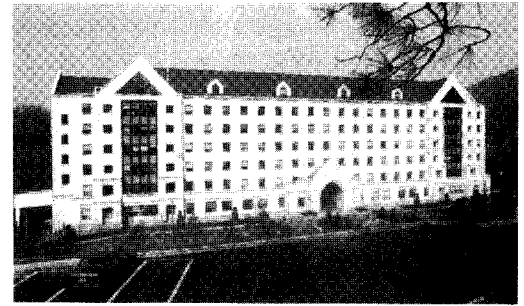
국의 GNP 대비 정부예산 비중이 25~55%에 이르는 고국에 비해 가능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대학교육은 9.4%에 불과한 대학교육비를 15%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백63만원으로 일본(6백29만원), 미국(8백75만원), 독일(5백52만원)에 비해 대 산술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연수에 대한 지원도 1992년 현재 교수 13만원, 전임강사 10만원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교수 연구보조비는 1975년 교수 7만2천원, 전임강사 4만2천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년 동안 100%인상한 셈이다.

20년동안 2배 인상

대학 제정은 그 취약성에서

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모든 사립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며, 정신을 논리하는 사립대의 필사적인 노력은 학생 수에 따라 재정규모가 결정되는 예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학교 재단의 자산은 1조 원 이상, 부채는 30억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산 1조원과 비교해 볼 때 부채는 없다고 봐도 무난한 액수다. 부채의 성격도 정부에서 차관을 끌어다 지원한 것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20년) 이자가 적다. 학교측은 밝히고 있다. 안빌려쓰면 손해라는 설명이다. 자산의 규모를 떠나서 긴축정책은 필수적인 과제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비전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직교수



이화여대는 현대그룹의 도움을 받아 원로인 원대대학 교수관을 지었다.

주요국의 GNP 및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국가별	교육예산 비중		고등교육예산비중		(단위 : %)
	GNP대비	정부예산대비	GNP대비	정부예산비중	
미국	6.8	21.0	2.73	40.2	34.6
캐나다	7.0	15.3	2.04	29.1	41.7
네덜란드	6.81	13.17	1.90	29.2	51.7
호주	5.5	12.5	1.69	30.7	32.1
아일랜드	6.23	15.01	1.22	19.0	41.5
싱가포르	3.9	11.5	1.20	30.7	33.91
말레이시아	7.8	16.9	1.16	14.9	46.13
오스트리아	5.66	12.52	1.11	19.4	45.2
일본	4.8	16.2	1.08	22.5	25.6
노르웨이	6.88	13.52	1.02	15.2	50.9
스위스	4.77	15.54	0.98	18.7	30.7
독일	4.00	9.55	0.94	21.5	41.9
영국	4.75	12.60	0.91	18.9	37.7
프랑스	4.6	17.7	0.81	17.6	26.0
체코	6.60	11.54	0.76	15.4	57.2
벨기에	3.8	7.6	0.69	18.1	50.0
포르투갈	4.75	10.28	0.66	12.5	46.2
그리스	2.64	5.52	0.62	19.5	47.8
한국	3.81	23.4	0.36	9.4	15.7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 Statistics on the Member Countries, July 1992.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1.

외국인들은 등록금부족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총장 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볼 때, 제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불합치가 이루어져 있다. 학교 제정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오직 교육자원에서 정부에서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제기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대학 교육의 수혜자는 기업과 정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언론에서는 기업들이 대학에 자금을 기부했다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건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분야에 연구해 결과를 내달라, 우수한 졸업생들을 보내달라,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적으로도 국가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의무를 이행(교육법 제143조)해야 한다. 또한 1997년까지 교육예산은 GNP의 5%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학생 등록금과 대학재정 형태는 89년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부족도 사그라들기 어려워졌을 것 이란 비판도 만만찮다. (김종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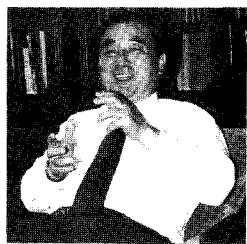
인 터 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박기서 교수

"발전기금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

26억원 확보... 사용자 우선순위 고민

대학마다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 뛰고 있다. 기금위원회 단면이 거액을 끌어오는 방법에서부터 문물들 모부터 소액씩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정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우리 학교도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물, 교수, 학생, 직원, 학부 등 경회가족으로부터 기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6억원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모금한 돈은 얼마나 되나.



는 없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획서를 제시 하지도 않고 돈부터 끌어오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성적으로 모은 돈을 쉽게 써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학교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사용처를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 이해 해달라. —1백억원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 다. 돈을 모은 것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화합과 일치 의 계기로 삼는데 더 큰 뜻 이 있다.

—발전기금 조성은. —무산하더라도 본다. 10만 원이 10만원씩 출연하면 1백억이 된다. 문물에서 문물들의 주조자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금 사용처에 대한 비판 의 소리가 있는데. —출연된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지 명확하게 결정된 바

테트리스게임을 즐기는 이부장님

아마비독3단의 실력가, 임대리

세태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의 회사 '현대자동차'

자금은 잠정시! 마독판을 앞에 놓고 무아지경에 빠져든 임대리 —매사에 사려있고 신중함 그는 요즘세태답지 않게 차분하고 넉넉한 사람.

일요일마다 아들과 함께 오락게임을 즐긴다는 이부장님은 컴퓨터게임을 통해 젊은 사람의 감성과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는 (40대의 신세대?)

—세태간의 화합이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게 아닐까?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